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편견 버려야”

입양의 날 맞아 '입양엄마' 3인이 말하는 입양의 의미

가족 되기까지 복잡한 절차 속 아이에게 '든든한 기회' 주는 것
광주 등 입양 감소세...인식개선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노력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려주세요,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제18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광주지역 '입양 엄마'들이 매년 줄어든다는 입양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 입양된 아이는 6명에 그쳤다. 2018년 25명에 달하던 광주 입양아동은 23명(2019년)→18명(2020년)→7명(2021년)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2019년 704명에서 2021년 415명으로 크게 줄었다. 광주지역 입양 맏인 이인순(51), 고재숙(57), 김미경(52)씨는 “입양은 혈연(血緣)으로 맺은 인연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엄마로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관계다”고 말했다.

이인순씨는 지난 2014년 입양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됐다. 결혼 14년 차가 됐지만 불임판정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많은 이야기 끝에 결국 입양을 결정했고,

생후 2주만에 위탁가정으로 보내져 당시 100일이 갓 넘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이 아이는 지난 2015년 1월 29일 가정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이씨의 가족이 됐다.

이씨는 “위탁부모가 자신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던 순간 잠결에 씩 웃던 아이의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웃었다.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던 이씨는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자연스럽게 알렸다. 일명 ‘공개 입양’을 한 것이다. 숙제 같았던 일이었지만 아이가 의연하게 받아들여 이씨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웃어보였다.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이씨는 “입양을 했던, 낳아서 키웠던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이고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다”면서 “입양 가정도 그저 평범한 가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슬하에 스물아홉, 서른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인순씨



고재숙씨



김미경씨

고재숙씨도 입양맘이다. 고씨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다. 고씨는 지난 2011년, 첫인상이 ‘똥공’ 같았던 78일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평소 입양에 관심이 있었던 고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입양을 결심하고 절차를 밟았다.

추천을 받을 당시 3명의 아이를 보기로 했지만 첫번째 아이를 마주하자마자 고민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고씨의 설명이다.

고씨는 본인이 특별한 사람이라 입양을 한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입양 가족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씨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

을 본 아이들에게 입양이라는 기회를 주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입양을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사무소와 광주시 지정기관인 영아일시보호소 등 2곳 중 한곳을 거쳐야 한다.

2012년 8월 입양특별법 개정 이후 입양 절차도 복잡해졌다. 입양을 위해선 상담부터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사무소의 가정방문, 부모교육 이수, 20여 개의 서류 준비와 가정법원의 판결까지 거쳐야 한다.

김미경씨도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입양 결심 이후 꼬박 1년을 걸려 지금의 아이를 만났다.

2017년에 만난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다.

40대 초 늦은나이에 결혼한 김씨는 한번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양육에 대한 간절함으로 입양을 선택했다. 처음엔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컸지만 이제 “키워보면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입양은 혈연이 아니라서, 외적인 모습이 많이 없어서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키워보면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은 물론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고 웃어보였다.

아이가 그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서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는 것은 이들 모두의 소원이다.

이들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초부모미디어교육’을 계기로 만나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에 나섰다. ‘엄마제작단’이라는 영상제작동아리를 만들고 입양 인식개선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난 9일 직접 제작한 첫 영상 ‘입양엄마들의 입양편견깨뜨리기’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YCGuPz6P5Ao&feature=youtu.be>)에서 볼 수 있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아토피 예방 인형극 관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0일 어린이집 원생, 교사 등 300여 명이 광주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아토피·천식 예방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함평 주민들 “군 공항 이전 결사 반대”

함평군민들이 광주 군 공항의 함평 이전에 반대하는 켈기대회를 열고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전투비행장 함평이전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함평군청 앞에서 ‘함평군민 총 켈기대회’ 집회를 열고 “광주전투비행장(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공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뿜는 소음시

설인 전투비행장을 함평으로 이전하면 함평은 소음 지옥이 될 것”이라며 “함평 이전은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군수가 인구소멸 대책으로 함평 이전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오히려 인구소멸이 가속화 돼 함평은 폐허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가 유치 의향서가 바로 이전화정은 아니

라고 한 점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 의향서를 내는 순간 주민들은 자원사업을 두고 분열에 빠져 갈등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군수와 함평군은 진실을 은폐하며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지 말라”며 “전투비행장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군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군수 자리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시 교육청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학벌 조장”

학벌없는시민모임, 재고 요구

광주의 교육시민단체가 서울대 입시설명회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광주시교육청이 명문대 입시설명회 공동 주관자를 자처하며 학벌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사 본부 학생 학부모 설명회’를 주관해 진행한다.

이에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명문대 입시설명회의 공동주관자까지 자처하며 학벌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며 입시설명회 재고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그동안 전문대와 지방대 입시설명회도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온 것을 혼순간에 바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서울대 입시설명회는 공교육을 썩게 만들고 사교육의 거름이 될

뿐”이라며 “시교육청은 다양성을 품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다시 알차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 부활’에 대한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찾아가는 사 본부)는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마다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에 정확한 서울대 입시 정보를 전달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서울대학교 입시설명회는 충북, 부산, 충남, 전북 등을 거쳐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도 없는 서울대 입시설명회 부활’이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면서 “입시설명회는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의 입시설명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광주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범의단체조직죄 첫 적용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의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범의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나머지 공범들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 형량의 변동은 없지만,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는 경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